

‘중년’ 과 ‘배우’ 를 바라보는 예능의 시선들



미디어가 대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시선도 달라진다. 불안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고민조차 사치일 정도로 살아남기 바쁜 청년들에게 미디어는 중년을 주로 안정된 기반에 올라서 있는 존재이거나 누군가의 부모로 표현한다.

‘배우’는 어떻게 화려하고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때로는 가십의 표적이 되는 인물이다. 그렇다면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예능은 ‘중년’ 과 ‘배우’ 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 중년의 외로움 넘어 고민을 말하다

대표적인 중년 예능 프로그램인 SBS ‘불타는 청춘’은 싱글 중년 스타들이 서로를 알아가며 진정한 친구가 되어간다는 콘셉트를 가지고 ‘중년’ 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불타는 청춘’은 어느새 대중에게서 잊힌 채 추억 속에서만 존재하던 스타들을 다시 세상으로 끄집어냈다. 중년의 스타를 모르는 시청자에게는 신기한 광경이고, 그들을 아는

시청자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청춘 시절 잘 나가던 스타들이 프로그램 통해 얼굴을 알리고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예능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중년’ 들을 앞세우면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불타는 청춘’이 낸 성과는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의 청춘이 과거의 청춘인 현재의 중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들의 추억과 외로움뿐일까.

“배우 인생이 힘들다. 어느 순간 직업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늘 생각하고 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는 건가...”

영화 ‘베이스 러너’로 잘 알려진 할리우드 배우 이기흥은 위와 같은 고민을 중년 배우 앞에서 고백한다. 오늘이 불안정하고 내일이 두렵고 꿈조차 사치인 청춘들은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서도 끊임없이 고민한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이 길 위에서 있는 게 맞는 가 하고 말이다.

tvN ‘할리우드에서 아침을’에는 연기 경력 모두 129년을 자랑하는 박정수, 김보연, 박준금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배우 3인방이 할리우드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47년차 배우 박정수와 45년차 배우 김보연, 37년차 배우 박준금은 중년 여배우에게도 살아남는 것은 여전히 힘들며 때로는 배우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한다. ‘최고’라는 위치에서 있음에도 여전히 현재는 불안하고 미래는 알 수 없다. ‘중년 배우’도 여전히 밀레니얼 세대와 같은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29년이라는 기반이 ‘제로’(0)가 되는 할리우드에 도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일 수 있다. 후배인 이기흥에게는 뒤도 덮도 보

‘중년’의 외로움 넘어 ‘보편적’ 고민 묻는 시도

지 말고 일반 보고 가라 조언하던 3명의 중년 배우들은 도전을 하면서도 조언과 달리 계속 뒤돌아본다. 그들의 도전이 조금 더 무게를 갖는 것은 현재의 청춘들에 대한 책임 때문이다.

“만약에 내가 조그만 역할을 하게 되면 나라고 못 할 것 없지” 그런 마음을 갖는 후배도 있었지.”(김보연)

◇ 배우 그 자체에 집중하다

중년을 추억의 코드가 아닌 현재에도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세대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배우’로서 가진 고민을 들여다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예능에서는 ‘배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난달 14일 첫 방송을 시작한 MBN ‘오늘도 배우다’는 요즘 문화를 모르는 다섯 명의 배우 군단이 젊은 세대의 인싸(‘인사이드’라는 뜻으로, 각종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이르는 말) 문화에 도전한다는 콘셉트다. 직업이 ‘배우’인 5명의 사람이 요즘 문화를 ‘배운다’라는 뜻을 담은 이 프로그램에서 기성세대인 배우가 젊은 세대 트렌드인 ‘인사 문화’와 관련된 놀이, 음식, 지역 등을 찾아 체험하고 배운다. 그들은 처음 접하는 문화 앞에서 당황하고 실수를 연발한다.

이처럼 ‘오늘도 배우다’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한계, 즉 ‘세대 차이’를 예능에 익숙하지 않은 배우를 활용해 보여준다. 배우는 ‘익숙치 않음’을

보여주는 장치인 동시에 웃음 코드인 셈이다.

이와 달리 ‘할리우드에서 아침을’은 배우를 배우답게 활용하면서 동시에 배우 본인의 고민이자 ‘여성’이 가진 보편적 고민을 담아낸다. 시대가 바뀌고 나이가 들면서 하고 싶은 역할을 마음껏 할 기회는 점점 줄고, 여배우에게 ‘엄마’ 역할은 정해진 순서와 같다. 박정수는 드라마 약 85편 중 72회, 김보연은 드라마 약 40편 중 31회, 박준금은 드라마 약 40편 중 30회씩 엄마 역할을 맡았다. 다른 게 있다면 나쁜 엄마거나, 착한 엄마거나 부자 엄마거나 가난한 엄마라는 정도다. 엄마 역할을 하지 않는 중년 여배우는 갈 곳이 없다.

그런 그들에게 할리우드는 꿈이자 중년 여배우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 줄 ‘희망’과도 같다. “내 나이쯤 되면 한국말도 잊어버려요”라는 박정수의 말처럼 우리나라 말 대사를 외우는 것조차 힘겨운 나이에 이해하기조차 쉽지 않은 영어 대사를 외우며 도전하는 것은 ‘중년배우’나 ‘여배우’가 아닌 그저 ‘배우’로 살고 싶기 때문이다.

◇ 예능은 그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능은 분명 재밌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재미가 단순히 웃고 떠드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소재와 장르만큼 다양한 인물이 출연해 웃음과 더불어 때로는 감동을 주는 게 예능이다. 드라마에서 ‘엄마’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여배

우가 ‘예능’을 통해 그 한계를 벗어나고자 했다는 것은 주목할 지점이다.

‘할리우드에서 아침을’은 ‘여배우’라는 수식어 뒤에 감춰진 중년 여성 배우가 가진 진지한 고민을 진지한 감동으로 풀어낸 ‘쇼양(예능과 교양 프로그램의 합성어)’에 가까워지기도 모른다. 웃음 코드라고 해봤자 129년 경력자들이 초보처럼 서툴고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서 오는 반전이 전부다.

한 방송 관계자는 “연기라는 배우 본인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는 도전이었기에 배우보다 다른 포맷보다는 부담이 덜 했을 것”이라며 “여배우들도 사실 새로운 분야를 시도하는데 대한 열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할리우드의 아침을’은 본연에 충실할 때 나오는 예능의 재미를 보여줬다. ‘중년’, ‘배우’, 그리고 ‘여성’이라는 각 키워드에 최적화된 ‘중년 여배우의 할리우드 도전기’라는 포맷을 통해 각 키워드를 어떻게 활용할 때 가장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요소가 갖는 ‘본질’을 어떻게 예능에 이용할 수 있을지 보여줬다. 동시에 ‘중년 여배우’로 대표되는 중년여성에 대한 사회보편적 인식과 고민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또 다른 방송 관계자는 “하루라도 예능은 캐릭터가 중요하니 캐릭터만 확실하면 잘 될 것”이라며 “예능도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등 의미 있는 시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예능이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웃음과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오래된 숙제와 같다. 그런 점에서 다음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항거’ VS ‘1919 유관순’, 같은 소재 다른 이야기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영화 두 편이 개봉했다. ‘항거 유관순 이야기’ ‘1919 유관순’이 하나의 소재로 다른 이야기를 선보이며, 관객에게 흥미로운 관심을 선사했다.

3.1운동 100주년에 맞게 뜻 깊은 해에 탄생된 영화 ‘항거 유관순 이야기’(이하 ‘항거’, 감독 조민호)와 ‘1919 유관순’(감독 신상민)의 공통점은 유관순 열사를 소재로 하고 있

다는 점이다. 두 작품 모두 유관순(고아성 분), 더 나아가 서대문 감옥 8호실 여성들을 그렸다. 다만 ‘1919 유관순’은 유관순 외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좀 더 심도 깊게 다뤄 ‘항거’와 차별점을 뒀다.

사실 두 영화는 유관순 열사 소재로 하고 있는 점,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장

르부터 달랐다. ‘항거’는 픽션으로만 이뤄졌다면 ‘1919 유관순’은 픽션 다큐로, 다큐멘터리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즉, ‘항거’는 스토리 라인을 중요시했고, ‘1919 유관순’은 전문가들의 고증, 역사적 사실을 중요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항거’를 보는 관객들은 절정에 달할수록 박박치는 주인공의 감정에 몰입해 따라갈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1919 유관순’은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이



는 픽션 장면 부분에서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으나 전문가들의 고증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몰랐던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어 새로운 시각을 선사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 감옥 8호실 장면을 그린 장면에서도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다. ‘항거’에서는 3평도 안 되는 서대문 감옥 안에 스무명이 넘는 열사들이 있었던 반면 ‘1919 유관순’에서는 이에 반해 적은 열사들이 등장한다. 두 영화 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위해 해당 장면을 연출했다.

그런데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 들어간 같은 시기를 그리고 있는데 왜 다른 장면이 연출됐을까. 1919 유

관순’에 출연한 이세복(유관순 역)은 “제가 알기로 바로는 3.1운동 전에는 감방 안에 20, 30명씩 수용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유관순 열사님이 형무소에 갔을 때 실제 7, 8명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등장인물에서도 두 영화의 차이점이 눈에 띄었다. ‘항거’와 ‘1919 유관순’에서는 일본 경찰인 친일파 조선인을 다르게 그려낸 것. ‘항거’에서 조선인 출신 헌병 보조원 니시다(정준원 분)는 살기 위해 친일파 인물이다. 여러 방법을 자처했지만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같은 조선인을 짓밟는 짓을 하게 되는 인물이다.

반면 ‘1919 유관순’에서 나온 조선인 출신 일본 순사 마쓰자카는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인물이다. 조선인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물론, 잔인한 고문까지 스텝없이 행한다. ‘항거’와 ‘1919 유관순’은 등장하는 인물을 다르게 그려냄으로써 영화의 색채를 다르게 표현했다.

유관순 열사라는 같은 소재를 다루지만 다른 이야기를 그려낸 두 영화 ‘항거’와 ‘1919 유관순’, 작품성을 떠나 열사를 기린다는 깊은 메시지는 관객에게 큰 감동을 안긴다.

박봄, 아이튠즈 11개국 K-POP 차트 1위

가수 박봄의 신곡이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6시 발매된 박봄의 새 솔로 싱글 앨범 ‘Spring(봄)’ 타이틀곡 ‘봄(fea. 산다리박)’은 14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간)으로 빌보드 터키, 포르투갈 등을 포함한 전 세계 11개 국가 및

지역 아이튠즈 TOP SONG 차트에서 K-POP 부문 1위를 차지했다. 그 가운데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3개국에서는 전체 TOP SONG 차트 1위에 올라있으며, 수록곡 ‘내연인’과 ‘청바지’ 또한 상위권에 포진하는 등 박봄은 여전히 건재한 글로벌 음원파워를

보냈다. 봄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담아낸 ‘봄’은 팝 기반의 그루브한 사운드와 박봄의 리드미컬한 가창법이 돋보이는 곡으로,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의 수장 용감한 형제를 필두로 프로듀서 차룬, 레드쿠기의 공동작업으로 탄생했으며, 산다리박이 피쳐링으로 참여해 더욱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 노래는 14일 현재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 빅스 지니, 올레, 소리바다, 멜론 실시간 음원 차트에서 1위, 멜론에서도 2위에 올라있어 국내 차트 유희도 눈앞에 둔 상황이다. 한편, 박봄은 14일 오후 방송되는 Mnet ‘헬프 투다운’에서 음악 방송 컴백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뉴시스

오늘의 순서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음력 2월 9일)



▶**새벽** 무엇인가 먹거게 해보고 싶지만 마음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조금하고 항상 초조한 상태다. □, ㅈ, ㅊ 성씨 나보다 못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만 불행하게 뒤쳐져 있다는 생각에 답답하지만 하루나, 2, 6, 10월생 자신 있는 여유를 가져라.



▶**새벽** 사랑하는 사람과 생각 다르다고 언행을 함부로 한다면 불리하다. 감정을 억제하고 여유를 가져라.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으나 결국은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신세. 홀로서기에 힘이 들지만 한층 더 뛰어야 할 날야. □, ㅂ, ㅍ 성씨 소화불량에 주의.



▶**황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초조한 마음. 도를 닦는 심정으로 인내하라. 순리대로 행할 때 길이 있다. ㄱ, ㅅ, ㅇ 성씨 자신의 노력과 결단에 의해 호기를 맞을 수 있으니 찬스 포착하라. 3, 9, 10월생 가정에 신경 써서 아이들 건강도 체크해 보아라.



▶**새벽** 본인이 하는 일은 정당하고 상대가 하는 일은 부당하게 보다면 존경받지 못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자신이 행한대로 걷는 법이니 남을 원망하지 말고 화목 유지하라. 3, 5, 9월생 투자한 것 애만 태우는 격.



▶**황혼** 신중을 기해 현 상태를 유지하라. 불행을 겪고 있으니 마음이 흔들린다. 아직은 변동할 시기가 아니다. 홀로서기를 배워서 마음도 육체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야 할 때다. ㄱ, ㅎ, 소띠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자다.



▶**새벽** 평온한 상태에서도 때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짜증스럽고 불안에 가득 차 있으니 권태로운 시기다. 혼자서 울고만 살 수 없는 일. 자기 팔자 한탄한들 뒤에서 침 뱉기니 마음의 안정을 찾아라. 1, 5, 9월생 이후수.



▶**황혼** 화술이 능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지만 끈기가 없어서 끝맺음이 약한 것이 단점이다. 또 하나 실수를 잘 내는 것을 고쳐라. 3, 8, 10월생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고집 부리는 것을 조금 꺾어야 할 때.



▶**새벽**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좋으나 남의 것을 모방한다면 삼가라. 처음에는 포부가 크지만 결국은 뒤쳐진다. 확고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때 서서히 운이 열릴 듯. □, ㅈ, ㅎ 성씨 급히 서두르다 보면 허점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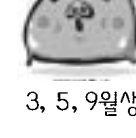
▶**황혼** 자신만만해 하다가도 예기치 않는 일이 생긴다. 금전관계나 이성문제로 구설수가 있으니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처신하라. 잘못 시작한 애정이 이제 짐만 되어 혼자서 살아가기에 힘이 겹다. 소, 양띠가 도와 줄 듯.



▶**새벽** 불의를 보고서는 참지 못하는 성품은 좋지않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손해뿐이다. 1, 5, 9월생 다른 사람 사정을 보아주다가 당신은 올상이 될 듯. 인정에 굴리지 말고 자기 일에 열중하라. ㄴ, □, ㅈ 성씨 사랑하는 사람과 오후를 함께 함이 어떨까.



▶**황혼** 친구 간에 동업 하지 말고 보증 서지 마라. 3, 5, 9, 12월생 우정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혼자서 채우 부담에 친구까지 잃게 된다. ㄱ, ㅈ, ㅎ 성씨 사업에 지치고 사랑에도 지친 마음 잡을 길 없구나. 서, 북간 사람이 도움 줄 듯. 자신감이 요구됨.



▶**새벽** 생활의 리듬이 깨지면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어려울수록 침착하게 대처하라. 생각은 크고 행함은 작아지니 현 위치에서 도피하고 싶지만 지혜를 모아 용기로써 전진하라. 3, 5, 9월생 할 일은 많은데 몸이 따라 주지 않는다. 주저하지 말고 일여라.